

#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향

 **보건복지부**  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## 목차

- I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요
- II 제도의 편익
- III 제기되는 문제점
- IV 향후 정책방향

# I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요



## I .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요



### 도입배경

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실거래가제도의 모순 해소

### 정책목표

- 요양기관에 실거래가 구매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및 음성적 리베이트 제거
- R&D 투자유도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
-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

## 제도 유예

2012년 4월 약가를 큰 폭으로 인하함에 따라 제약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말까지 시행 유예

## II 제도의 편익



## II. 제도의 편익

### ● 의약품 유통 측면

#### 입찰 활성화를 통해 저가구매 및 공정경쟁에 기여

- 사립병원 입찰 6.8%(10년) → 9.0%(11년)
- 제도 시행 유예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, 저가구매 감소
  - ※ 평균할인을 3.0% → 2.2%로 0.8%p 감소

#### 실거래가격 파악에 유효

- 인센티브는 실거래가격 파악에 실효성이 있으며,
- 실거래가 자료는 약가정책 수립 시 정책 근거자료로 매우 중요
  - ※ 서울대 권순만 교수, 2013년

## II. 제도의 편익

### ● 건강보험재정 측면

#### 다음해 실거래가중평균가로 약가인하

- 약가인하를 가정할 경우 399억~2,146억 원의 재정절감
  - ※ 심평원 효과 분석, 2012

#### 약가사후관리

- 지속적인 사후 약가관리기전으로 작용 가능



## II. 제도의 편익

### ● 국민편익 측면

#### 환자부담금 감소

-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한 만큼 환자부담금이 절감  
– 시행기간 동안 약 512억 원 절감

※ 심평원 효과 분석, 2012

## II. 제도의 편익

### ● 제약산업 측면

#### 연구개발비 비율 증가, 판매비 비율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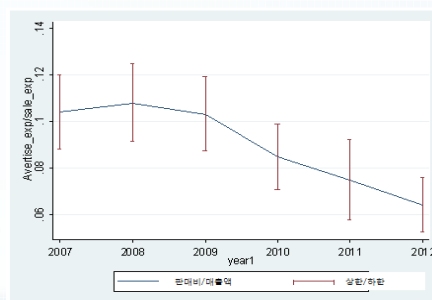
- 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비율은 증가하고, 판매비율은 감소추세  
–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

※ 서울대 권순만 교수, 2013년

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(07-12)



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율(07-12)



### ● 요양기관 측면

#### 수익 증가

- 저가구매에 따라 1,966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음  
※ 심평원 효과 분석, 2012

#### 인센티브 편중

- 요양기관의 구매력 차이로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
  - 상급병원에 인센티브의 54.6%(1,073억 원) 지급
- ※ 심평원 효과 분석, 2012

## III 제기되는 문제점



#### 1.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병원의 양극화 심화

- ➡ 의료기관의 평판, 지리적 편리성, 질환의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 선택
- ➡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대형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비율 차이가 있어 약가차이만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발생하기 어려움

#### 2.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

- ➡ 1원 낙찰은 제도 시행 전에도 있던 현상이며, 제도시행으로 입찰기관이 증가하여 초저가 낙찰이 증가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유예된 현재에도 여전
  - ※ 1원 청구 품목수 : 1,820(이전) → 2,759(시행기간) → 2,903(유예기간)
- ➡ 1원 낙찰의 경우 원내처방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며, 처방이 없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, 약가인하의 영향도 받지 않음
  - ※ 원내 49.0%, 원외 51.0% (시행전) → 원내 30.8%, 원외 69.2% (시행기간)



#### 3. 약가마진 인정않는 의약분업제도와 상충, 국민에게 이중부담

-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은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
- 인센티브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의약품의 거래내용을 투명화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이 경감되는데 따른 보상임
-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경우 환자 부담금이 감소되고 다음해 약가를 인하할 경우 환자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음

#### 4.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피해 예상

-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금액을 R&D투자로 전화시켜 제약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입
- 제도 시행 후 연구개발비 비중이 증가한 반면, 판매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정적 여향을 준다는 주장은 잘못
- 정부는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, R&D 우수 기업 약가인하 감면 등 약가정책 시행
- 약가정책 이외에도 세제지원, 펀드조성, R&D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제도를 통해 지원을 확대

#### 5. 약가일괄인하, 기등재 목록정비로 제도효과 달성

- 약가일괄인하 및 기등재목록정비는 과다한 약가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
-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존 제도의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
- 사후 약가인하기전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내역 파악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임



### IV 향후 정책방향



-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
- 의약품 유통투명화 여건, 공정한 의약품 거래관행의 정착, 제약산업 발전,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-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**감사합니다.**



[www.mw.go.kr](http://www.mw.go.kr)